무안, 지난해 인구증가율 2.65%… 군 단위 전국 1위

신도시 유입·출산 장려 정책·정주여건 개선 등 효과

김산 군수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 실현…인구정책 박차"

무안군은 2024년 기준 인구가 9만 2687명으로 전년 대비 2391명이 늘어 인구증가율 2.65%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 중 전국 1위,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무안군 인구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3446명으로 3개월 만에 759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4년에는 547명의 아기가 태어나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으며, 2025년 3월 말 기준 134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져 전년 대비 10%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군은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남악·오룡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꾸준한 유입, 농촌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도시재생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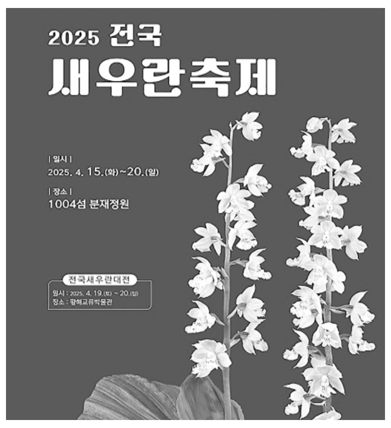
또 무안에서 태어나 자란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2000여만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인구·출산 정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인구 증가를 이끄는 데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의 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증가는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10만 인구 달성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신안 '전국새우란축제' 15~20일 개최

1004섬 분재정원서 "새우란의 향연을 만나다"



신안군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1004섬 분재정원에서 2025전국새우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신안군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자생란, 새우란을 주제로 열리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2025전국새우란대전을 선보여 애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새우란(蘭)은 그 이름처럼 뿌리의 마디가 새우 모양을 닮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새우란은 6종으로, 그중 신안새우란과 다도새우란은 신안군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한국식물분류학회에 품종 등록되었다.

신안새우란은 2017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신안군 군화로 새롭게 지정되어 자생식물의 보존과 미래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사군자테마관에서 광양, 신안, 담양, 함평의 매난국죽 전시를 선보이며, 특히 새우란 자생지 연출 및 국내외 품종 전시를 통해 새우란 500여 점을 전시한다.

자생식물 및 농·수특산물 판매 장터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협력으로 '어떤생물' 기획전 전시, 전국애란인들의 새우란을 뽐내는 2025전국새우란대전 등이 진행된다. /신안=강축복 기자

완도 치유 페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2200여 명 페이 받아… 2억 2900여만 원 식당·숙박 등 지역 내 사용

완도군에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도 치유 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치유 페이'는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5만 원 등 최대 20만 원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이다.

3월 1일부터 한 달간 '완도 치유 페이' 사전 여행 계획서를 등록한 인원은 3269명, 페이(쿠폰·포인트)를 받은 인원은 870팀, 총 2204명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 치유 페이'를 받은 관광객들의 총 소비 금액은 2억 6880만 원으로 이 중 85% 이상인 2억 2965만 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주요 소비처로는 식당(48.29%), 숙박(22.53%), 특산품 매장(24.91%), 카페(4.26%) 순이었으며,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은 121,997원이었다.

관광객은 전남(171건), 광주(139건), 경기(134건), 서울(95건)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완도 치유 페이 관련 안내 문자 발송과 카페,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장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완도 치유 페이 사용률을 높여 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 치유 페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영암군보건소, 학교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운영 시작

영암군보건소가 8일부터 신북초·영암초·소림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치과 장비가 갖춰진 학교 공간으로 찾아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시기에는 충치 같은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영암군보건소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교육과 검진, 불소도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학교 구강보건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구강보건실이 없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을 찾아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영구치가 자라는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자체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나서

복무·청렴 의무 등 집중 점검

목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자체 감찰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감찰은 시장 공백 상황 속에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복무 위반을 비롯해 업무 지연 및 소극행정, 청렴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자체 공직감찰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 공직자 대상 청렴 설문조사,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통해 공직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강진 만덕지구 수질개선 93억 투입 농업경쟁력 높인다

인공습지 조성·수질정화 인공 식재림 설치 등 추진

강진군이 도암면 만덕·학장리 일원 만덕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만덕호는 총저수량 139만7000㎥ 규모의 담수호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질이 5등급(TOC 기준 6.6mg/L)으로 평가됐다.

유역면적이 작아 강우 때 외부 유량 유입이 적고 사용된 물이 다시 만덕호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진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농업용수 수질기준(4등급) 충족을 목표로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 93억2500만원 규모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74억 6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해 추진된다.

강진군은 국비 지원을 적극 유치한 결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인공습지 조성, 수질정화 인공 식재림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한다.

인공습지는 양만장 폐수 처리를 위해 조성되며 수질정화 인공 식재림은 만덕호 유입수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간척지 중앙 수로와 동측 수로의 정비를 통해 수초 및 표토를 제거하고 응집·침전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진=김경선 기자

진도, 3년 연속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스마트 마을방송·공공앱 개발 등 현장 중심 소통 행정 호평

진도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평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가점 부여, 사전 상담 제도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 다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출한 '진도군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는 '스마트 마을 방송'과 '진도군 공공앱'의 개발을 통해 군민과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

또 고령의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스' 연계를 통해 정보격차를 혁신적으로 해소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전 직원의 값진 결과물"이라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해남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해남군이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군단위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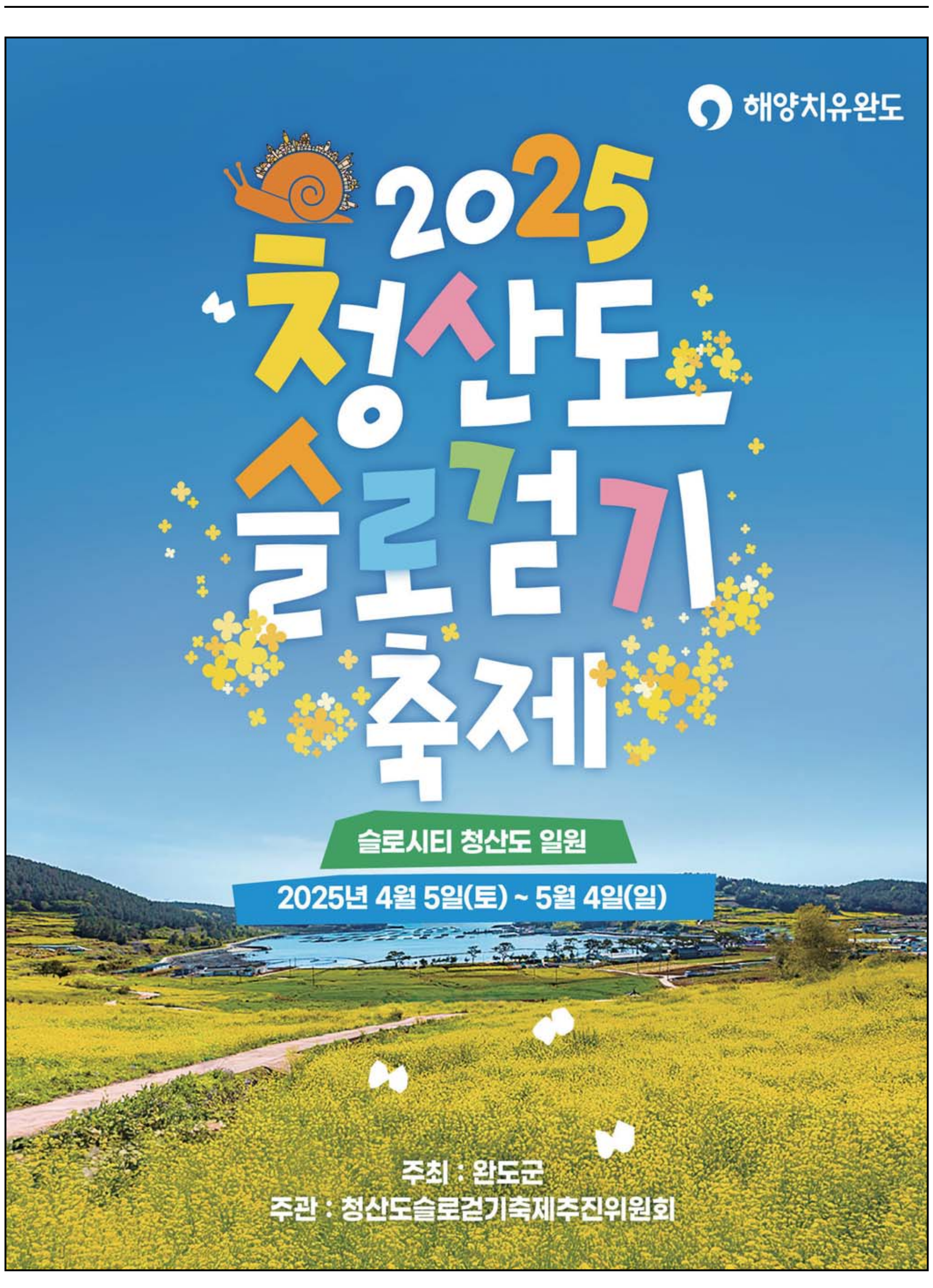
해남군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보상보다는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 중점 과제 발굴, 부서·기관 간 협업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이디어 공모 제안과 적극행정 홍보 동영상 출연, '적극행정 ON 국민추천' 등 새로운 적립 기준을 추가해 운영 범위를 한층 넓혔다.

또한 보상 점수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해 일정 마일리지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여가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